

##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성경말씀: 벰전2:11-25

벰전2:1-10,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의 신분과 의무, (1) 하나님의 아들딸: 새로 태어난 아기들, (2) 영적 집의 돌들(4-8), (3) 왕가의 제사장, (4)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트로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보여야 한다. 가족, 교회, 사회, 국가에서 세월호 사건, 50일이 지남, 마음이 착잡하다. 많은 성도들을 무지로 넣고 돈을 갈취하고 영혼을 피폐하게 함.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돈만 모으다가 초대형 안전사고를 냄,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국가의 공권력을 떨치하며 도망다님, 망명 신청까지 냄, 우리 성도들로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교회 사이트에도 이런 글이 올라온다, 5,000억 횡령, 교회 프렌차이즈, 그리스도인 병역 기피자가 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등이 나면 촛불 집회장으로 나가야 하는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사회적 책임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2:11-3:12, 내용은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것, 무법 세상, 평등 세상에서 실행하기 어려움. 노동당 투표 참관인, 대통령의 악수 거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자가 어울리지 않게 대통령이 랍시고 악수를 청하는 게 아닌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악수에 응하지 않았다.”

권위가 파괴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국가(11-17), 사회 직장(18-25), 가정(3:1-7), 교회(3:8-12)

국가, 사회, 가정, 교회에서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노예를 뜻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질서 파괴되고 국가, 사회, 가정, 교회가 멸망한다(고전14:33). 사람은 누구나 권위를 행사하기 원한다. 그런데 그 전에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국가의 형성: BC 2400년경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인간 정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창9:5-7). 순서, 권위 하에서 다산하라. 창10-11장 민족 형성, 바벨탑 분산

### 예수님과 사도들의 국가/사회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국가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1. 마17:24-27, 가버나움에서 공세를 내심, 자녀들은 면제,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내심.
2. 마22:15-22, 바리새인들,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카이사르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3. 눅13:1-5,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은 것,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 데모해라. No! 사람인지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탐욕, 실수). 그럼에도 나라를 전복시키는 일은 안 됨.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 자체를 행한 적이 없다.
4.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빌라도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지만 그분은 세상의 모든 규례에 순종하고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였다(13절).
5.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로마 제국 하에서 네로라는 사악한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 로마에 불을 내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워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악랄한 자, 그래도 13-14절에 따라 성도로서 마땅히 세상 권위에 순종해야 함.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 좋은 시민
6. 사도 바울의 고백: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메시야다.”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려 옥에 갇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의 고백(행25:8; 11),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순교하였다.
7.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간 성도들의 기본 자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받아 세상 권위에 순응하며 살았다.
8. 그 이유: 나그네와 순례자(2:11), 예수님의 말씀: 내 왕국은 여기에서 속하지 않는다(요18:35-37).
9.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나머지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10. 교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아니다.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불의와 비진리를 미워하지만 그것들을 무력으로 타파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혼의 문제를 가장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 신자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세상의 모든 규례에 순종해야 한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 한다.

## 왜 국가와 사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 하는가?

### A.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11-12)

1.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11).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
2. 나그네요, 순례자다. 즉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외국이다. 외국에 가면 거기 시민들이 방문자, 순례자들을 유심히 살펴본다. 괜히 트집을 잡는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학대
3. 육체의 정욕들과 싸우는 군사들이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자들,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구원과 사람들처럼 정욕들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에 패하고 조롱거리가 된다.
4.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12). 그래야 우리를 비방하다가도 돌아선다. 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본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지만 사람은 본다.
5. 12절의 '돌아보시는 날'은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 그때에 이들이 우리에게 대해 증언할 것이다.

### B. 주님을 위해서(13-17)

1. 성도의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널리 전하는 것(2:9), 즉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있다.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하나님을 나타낸다.
2.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규례에 복종해야 한다. 왕과 총독, 대통령, 장관, 시장, 군수 등
3.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15).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데 있지 않다. 좋은 시민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며 충성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4.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라. 국가의 법이 그들의 믿음을 위협할 때 양심의 요구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지만 데모하고 반역자가 된 것이 아니다. 촛불 시위한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왕의 권위에 순종하였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사의 성도들, 로마 제국과 카톨릭 교회의 핍박을 받았지만 좋은 시민으로 법에 순종하며 살았다. 주님을 위해서
5. 그 이유는 무엇인가?(롬13:1-2).
6.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딤후2:1-3).
7.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왕을 존경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17).

### C. 우리 자신을 위해서(18-20)

1. 종들에 대한 의무: 로마 시대에 종들이 있었다. 주인이 있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경우 종이 자기 주인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복종해야 한다(18).
3. 심지어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참아야 한다(19). 직장 생활에 얼마나 부당함이 많은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고 이겨야 한다.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
4. 잘못하지 않았어도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20). 좋은 직장인/사회인이 되어야 한다.

## 예수님이 본을 보여 주셨다(21-25)

### A.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의 본보기

1. 무언가를 새로 제작하거나 시작하려면 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 주셨다(21).
2. 무죄한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다(22-23). 이 땅의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긴다. 심판자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
3. 죄인들을 위해 심지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24). 십자가의 역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이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 본을 보여야 한다.
4. 그 결과 길 잃은 양이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혼의 목자, 감독(25)

##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한다

- ### A. 1945년 8월 15일 해방,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창립,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 호국보훈의 달, 목숨 바칠 각오